

2019. 12.

---

- 수자원 정책 · 노인복지 정책 발굴 및 도시개발 육성방안 강구를 위한 -

# 진안군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

---



진안군의회

# 목 차

## I. 연수개요

1. 연수목적
2. 연수기간
3. 연수자 명단 및 업무내용
4. 일정 및 수행과제

## II. 일반현황

## III. 연수내용

1. Newater Visitor Centre
2. Adventist Home for the Elders
3. Housing & Development Board(주택개발청)
4. Enabling Village(장애인복지시설)
5.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도시개발청)
6. Civil Defence Heritage Gallery

## IV. 의원별 연수소감

## V. 시사점 및 총평

## I

## 연수개요

## 1. 연수목적

- 우리군이 향후 대비해야 하는 주요사업 분야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싱가포르의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을 비교 견학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입안에 참고 활용토록 방향을 제시
- 수자원관리 시스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민방위 및 방재관련시설, 도시계획기관 등을 방문 견학
- 시설방문을 통하여 브리핑 청취 및 관련자료를 수집하며 견문을 넓히고 우리와 비교 검토를 한 후 축적된 결과를 토대로 의원 전문성을 제고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복지 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

## 2. 연수기간

- 2019. 12. 21(토) ~ 12. 26(목) (4박6일)

## 3. 연수자 명단 및 수행과제

- 의원 : 6명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1	진안군의회	의 장	신갑수	연수 기획, 진행 총괄
2		운영행정 위 원 장	이우규	복지정책 제도 연구 및 자료수집
3		산업건설 위 원 장	조준열	국토이용개발정책 제도 연구 및 자료수집
4		의 원	김광수	복지정책 제도 연구 및 자료수집
5		의 원	정옥주	문화관광 정책 제도 연구 및 자료수집
6		의 원	박관순	국토이용개발정책 제도 연구 및 자료수집

○ 수행직원 : 4명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1	의회사무과	과장	안정무	자료 조사 및 연구 총괄
2		전문위원	이철민	수자원관리 시스템 운영 조사
3		직원	정의열	도시개발 및 복지정책 자료 조사
4		직원	이자경	문화관광 정책 자료 조사

#### 4. 일정 및 업무내용

월 일 (요일)	출발	도착	방문기관 및 수행과제
12.21. (토)	진안 인천	싱가 포르	■ 항공편 이동
12.22. (일)	싱가포르		■ Newater Visitor Centre - 수자원 정책 및 하수 정수 시스템 연구 ■ 센토사섬, 머라이언 공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 - 문화관광 정책 및 공원조성 사례 연구 견학
12.23. (월)	싱가포르		■ Adventist Home for the elders - 노인복지 사례 연구 및 견학 ■ Enabling Village - 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정책 연수 ■ Housing & Development Board(주택개발청) - 공공주택 및 주거단지조성 정책 사례 이해
12.24. (화)	싱가포르		■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도시개발청) - 도시개발 계획 및 역사문화유적 보호 정책 견학 ■ Civil Defence Heritage Gallery - 소방 방재시설 역사 및 사례 견학
12.25. (수)	싱가포르		■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 싱가포르 역사 및 문화 탐방 ■ 아랍스트리트, 보타닉 가든, 리버크루즈 - 문화 관광 개발 사례 연구
12.26. (목)	싱가 포르	인천 진안	■ 항공편 이동

## II

## 출장국 일반현황

- 위치 : 동남아시아
- 인구 : 585만명
- 수도 : 싱가포르
- 면적 : 719.1km<sup>2</sup>
- 기후 : 열대성기후
- 민족 구성 : 중국인(77%), 말레이인(14%), 인도인(8%)
- 언어 :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 정부/의회형태 : 중앙집권공화제 / 다당제&단원제
- 종교 : 불교(43%), 이슬람교(15%), 도교(8%), 힌두교(4%)
- GDP : USD 349,659,000,000
- 인구밀도 : 8,274명/km<sup>2</sup>
- 시차 : 한국시간보다 2시간 늦음



-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끝에 위치한 도시국가이다. 50여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 1965년에 말레이시아에서 독립 이후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싱가포르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 중 하나이며, 금융과 제조업이 특히 발달해 있다.
- 열대기후 지역으로 무덥고 비가 자주 내린다.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등 다양한 인종이 사는 다민족 국가이며 인종에 따라 저마다 다른 언어와 풍속, 종교를 가지고 있다, 불교와 도교가 51%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등의 종교가 있다. 싱가포르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사용한다.
-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로 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이며 싱가포르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정족수는 94석이다. 징병제를 실시하여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 1. 뉴워터(New Water)방문

- 방문일자 : 2019. 12. 22.(일)
- 기관안내 : Nadia Izzati(PUB 선임매니저)
- 시설설명
  - 싱가포르의 연평균 2,340mm의 비가 내리지만 빗물을 저장할 영토가 부족하여 심각한 물부족 국가이다.
  - 싱가포르의 수자원 확보방안으로는 말레이시아에서 원수 수입, 저수지, 해수 담수화, 그리고 Newater 등의 수자원 공급원이 있다.
  - Newater Factory는 상하수도 종합처리 시설이며 수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1972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초기에는 비용 문제로 활성화 되지 못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 Newater System은 지하 10m 깊이로 48km에 달하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가정이나 공장, 산업시설 등에서 나온 하·폐수를 지하하수 터널(DTSS)을 통해 전국 7개의 하수처리장으로 모은다.
  -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하수 중 일부는 배독, 크란지, 블루판단, 창이 등 5개의 뉴워터 공장으로 보내져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도정수처리를 거친다. 현재 싱가포르 전체 물 수요의 40%를 책임지고 있으며 오는 2060년까지 물 수요의 55%를 뉴워터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질의응답
  - Q. Newater의 원수는 어떤 종류의 물이 해당되는가? 빗물등도 이곳에서 정수 되어지는지?
  - A. Newater는 오수만 처리하고 빗물 등은 다른 처리시설에서 담당 한다.
  - Q. 정화된 물은 어떻게 이용되는지?
  - A. 정화된 물은 식수로도 사용 되지만 주로 전기장치나 에어컨 쿨링시스템 등 산업용수로 많이 사용 한다.



Q. Newater가 차지하는 수자원 공급 이 5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A.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싱가포르의 강우량이 줄어들고 공급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원수 수입이 항상 안정적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말레이시아로부터 물을 수입하긴 하지만 이곳 Newater에서 정화된 물을 다시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기도 한다.



## 2. Adventist Home 노인요양기관 방문

○ 방문일자 : 2019. 12. 23.(월)

○ 기관안내 : Hansen Tan(매니저)

○ 시설설명

- Shelter home으로 혼자서 이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시설에서 지내면서 생활한다. 오전에는 주로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같이 게임을 하거나 노래를 같이 하고 영화시청 등을 하며 하루를 보내게 된다.
- 현재 여자 24명, 남자 14명과 간호사 및 직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입소자는 매달 S\$830 ~ S\$93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S\$600을 지원받고, 공적연금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질의응답

Q. 시설에 대한 기부금에는 정부의 혜택이 있는지?

A. 기부금에 대해 정부에서 250%의 세액 공제의 혜택이 있다.

Q. 정부에서는 이곳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A.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된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아 올 수 있는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시설은 2018년에 S\$165,000를 지원 받았다.

Q. 입소하기 위한 연령제한이 있는지? 주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

A. 65세부터 입소가 가능하며 평균 80~90대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신다. 그리고 이곳은 혼자서 거동이 가능한 분만 입소가 가능하다.

Q. 아파트의 1층을 요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A. 싱가포르에서는 요양원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또한 정부아파트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1층에 어린이집이나 요양원등을 입주 시키는 경우가 많다.





### 3. 주택개발청(Housing & Development Board) 방문

○ 방문일자 : 2019. 12. 23.(월)

○ 기관안내 : Han(공식가이드)

○ 시설설명

- 싱가포르 국민 85%가 정부아파트인 HDB에 거주 하고 있다. 싱가포르 주택 형태는 크게 콘도라 부르는 고급아파트와 HDB 아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싱가포르 국민이면 평생 동안 2번의 정부아파트 청약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 분양가의 10%만 내면 입주 가능하고 99년간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가 소유라 할 수 있다. 나머지 집값 90%는 25년에 걸쳐 상환 할 수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는다.
- 5년을 살고 나면 집을 팔수 있는데 환매조건부라 다시 HDB에 팔아야 한다. 대개 분양 받을 때 보다 집값이 올라 인상분에 대한 효과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 할 수 있다.

○ 질의응답

Q. HDB아파트는 누구나 입주가 가능 한가? 외국인이나 소득기준 등 제한이 있는지?

A.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이어서 부부합산 월 소득이 S\$12,000(약 1,000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입주가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공공주택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만 해당 된다.

Q. 2번의 기회만 있다면 부득이 하게 이사를 가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A. 이 부분은 싱가포르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점인 듯하다. 싱가포르는 국토가 작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 출퇴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이사의 필요성이 적다.



## 4. 장애인 복지시설(Enabling Village) 방문

○ 방문일자 : 2019. 12. 23.(월)

○ 기관안내 : Andrew Tay(어시스턴트 매니저)

○ 시설설명

- Enabling Village는 장애인들을 위한 포괄적인 공동체 공간으로 취업을 위한 트레이닝, 생산품 판매, 생활에 관한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커뮤니티 공간이다.
- 3만㎡의 부지에 장애인을 위한 고용센터, 놀이터, 슈퍼마켓, 헬스장, 장애인용품 판매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장애인 용품 판매,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원래 직업 교육기관이었던 곳을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조하고 장애인들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 장비들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비장애인들도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아트갤러리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 질의응답

Q. 고용훈련을 받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업체와 협약을 맺고 있는가?

A. Enabling Village는 정부기관인 SGEEnable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훈련에만 머물지 않고 고용촉진을 위해 업체와의 파트너십 협약을 맺고 있다.

Q. 장애인 보조용품 판매나 구입을 위한 국가의 보조 지원이 있는지?

A. 정부기관인 SGEEnable을 통해 최대 90%까지 지원이 되며, S\$40,000까지 가능하다.

Q. 이곳의 시설은 장애가 없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지?

A. 자폐나 중증장애인 교육 시설 등을 제외하고 헬스장이나, 아트갤러리, 슈퍼마켓 등은 장애인 비장애인 제한없이 누구나 함께 이용 할 수 있다.





## 5. 도시 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방문

○ 방문일자 : 2019. 12. 24.(화)

○ 기관안내 : Han(공식가이드)

○ 시설설명

- 1974년에 설립된 싱가포르의 도시계획 및 개발,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기관이다.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이행하기 위해 55개의 도시계획 구역에 10년 단위의 컨셉트 플랜(Concept Plan)과 5년 단위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통해 중장기적인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이용계획을 바탕으로 민간 및 공공분야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및 역사적 건축물 보전 지구 지정, 공유재산 장기임대 및 매매, 공공주차시설 공급 및 관리 등 도시계획과 관리·개발에 관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시계획 전시관을 통해 사업의 진행과정 및 계획을 공개한다.

○ 질의응답

Q. 개발에 대한 거주민들의 반발이나 저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응책은?

A. 사전에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정책을 홍보 하고 있으며,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거주민들에 대한 우선권이나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반발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Q. 싱가포르 도시개발은 어느 면에 중점을 두는지?

A. 싱가포르는 영토가 작기 때문에 제한된 국토를 계획적이고 균형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개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하여 빌딩 정원, 그린월(Green Wall)과 같은 친환경적인 도시계획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 6. 소방갤러리(Civil Defence Heritage Gallery) 방문

○ 방문일자 : 2019. 12. 24.(화)

○ 기관안내 : WRo Yuninos(가이드)

○ 시설설명

- 1996년부터 2층 규모의 아담한 소방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 소방서 (Central Fire Station)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 1800년대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의 민방위 및 화재진압 발전사를 일목요연하게 전시하고 있으며 소방 역사, 과거와 현재 소방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다.
- 소방의 역사와 소방관의 의무, 소방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일반시민들, 특히나 어린이들로부터 자연재해 및 화재, 각종 생활 안전사고 등을 실전과 같이 체험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IV 의원별 연수소감

### 신갑수 의장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도시국가로 독립한지 50여년만에 현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독립될 당시 모든 면에서 자원이 부족한,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였지만 오늘날은 1인당 GDP가 6만불이 넘는 도시국가로 성장하였다.

거리는 산뜻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고 열대지방의 우산나무 가로수와 건물의 벽면과 옥상에는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어서 도시 안에 녹색 숲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싱가포르가 왜 가든시티라 불리우는지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녹지가 많아서인지 싱가포르 사람들은 대부분 낙천적이고 여유가 있어 보였다.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살면서도 서로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인과 말레이인 인도인 등 서로 다른 인종과 불교, 도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지만 다양성 속에서도 조화를 추구하며 인종과 종교의 차별없이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 받고 있었다. Newater 방문을 통해 싱가포르의 수자원 정책도 배울 수 있었는데 심각한 물 부족 국가인 싱가포르가 수자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버려지는 하수를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정수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원수를 정수하여 다시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싱가포르의 수자원 정책이 인상 깊었다.

좁은 영토 이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개발계획으로 체계적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 부족한 물과 좁은 영토라는 싱가포르의 약점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제는 세계에서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 싱가포르를 찾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싱가포르는 사회기반 시설의 질, 기대수명, 노동시장의 유연성, 시장효율성, 금융체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미국을 제치고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이번 연수를 통해 이러한 싱가포르의 성장의 비결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배워야할 점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발전하는 싱가포르를 살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 이우규 운영행정위원장

싱가포르는 작은 섬들도 이루어져 있으며 국토의 1/3 가량이 섬과 섬을 잇는 바다를 매립하여 만든 땅이다. 국토 자체가 작아 인구 밀도가 높고 중국계와 말레이계, 인도계 등으로 구성된 다인종 다문화 국가이다. 강력한 정부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짧은 기간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었고 현재도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특히 금융과 항만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역사 및 문화의 특수성 때문인지 경제정책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지만 복지 정책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에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져 주기 보다는 개인과 가족, 민간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우선한다. 민간복지기관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기보다는 기부금을 모집해 운영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정부 지원 보다는 민간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은 우리에게도 필요성이 있어 보였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고용 교육, 재활,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 Enabling Village의 모습은 우리군에도 꼭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설인 것 같다.

싱가포르는 물 부족과, 좁은 영토, 그리고 독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국가 이면서도 역설적으로 물과 도로, 그리고 정부가 깨끗한 국가라고 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과 혁신적인 정책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싱가포르 정부와 국민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연수였다.

## 조준열 산업건설위원장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 항구를 이용해 무역, 금융, 관광산업 등이 발달한 항구 도시이다. 1995년 11월에 싱가포르 다녀 온 적이 있는데 2019년 12월 21일 24년만에 방문한 결과 괄목상대할 만큼 발전되었다. 물과 땅이 부족한 국가인데 바다를 25% 이상 흙과 쓰레기 등으로 매립하여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이다.

도시 건물 형태를 보면 똑 같은 건물이 없고 미적 감각을 살려 아름답게 지어져 있으며 건물옥상에는 나무 꽃 등을 식재하여 자연을 훼손한 만큼 건물옥상 등에 정원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옥상에 빗물 보관시설을 만들어서 빗물을 받아 재활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상가 건물 화장실의 손 씻는 시설은 자동 절전 시설로 물을 최대한 절약하고 있다. 싱가포르 물 활용은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수입하여 정화하여 물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고 있으며 빗물, 바닷물 등을 재정화하여 일반가정 등에 공급하고 있다. 2019년 12월 22일 일요일 뉴워터 기관 방문 견학은 공휴일인데도 관련담당자가 출근하여 상세하게 안내 설명하였고 우리지역 특산품을 드렸는데 거절한 사례는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워터 기관은 하수정화 시설 본연의 목적이외에 국민에게 수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센터를 운영 홍보하고 있다. 진안군에서도 공공기관 화장실에 손 씻는 시설에 자동 절전시설을 설치하여 물을 절약하고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군민들에게 홍보 교육을 강화 하여야 된다고 본다.

센토사섬 관광지에 케이블카와 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루지는 눈썰매와 같은 모양으로 생겼는데 직접 체험을 하니까 아주 스틸 있고 재미가 있어서 즐길 거리로 좋다고 생각되어 진안군에서도 마이산 관광지에 루지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오차드 시내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송과 거대한 트리를 설치 장식하여 크리스마스 분위기 조성하여 백화점 등 상가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선물 등을 판매하고 있다. 오차드 거리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경을 아름답게 꾸며 놓았으며 인도 중간에 마술 공연 등을 실시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관람하고 모금함에 자율적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돈을 넣도록 함으로써 현장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배울점 이라고 생각한다.

멀라이언파크는 싱가포르의 대표 상징물인 멀라이언상이 있는 공원이다.

멀라이언상은 8.6미터의 거대한 크기로 사자의 머리에 물고기의 몸체를 가지고 있는데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스이다. 진안군에서도 대표 상징물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기념촬영 등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진안군의 상징물을 조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김광수 의원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 규제와 공공질서, 계획 도시로 유명한 나라이다. 이러한 점 때문인지 싱가포르에 대한 첫인상은 높은 건물들과 도로, 녹색 정원이 잘 어울려 있고 잘 정돈된 나라라는 것이었다. 강력한 법 제도와 정책 때문인 이유도 있겠지만 싱가포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스스로도 준법정신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없는 나라로 여겨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도 부패방지법과 부패행위조사국같은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무원의 청렴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싱가포르 복지정책은 국가의 보조금 지원보다는 개인과 사업주가 분담하여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연금시스템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었다. 독립 후 빈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느라 노인 복지정책은 1차적으로 가족 책임 중심이다. 부양해줄 가족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지원을 국가에서 하지만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급격하게 복지에 산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여 앞으로의 복지정책 방향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어 보였다.

싱가포르의 주거복지정책은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지만 제한된 토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공공아파트의 공급으로 내 집 걱정없이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는 점은 한편으로는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청년세대에게는 주택문제가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주거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공공주택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은 장단점을 따져 우리 정책에 반영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 정옥주 의원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싱가포르의 작은 도시국가이다. 영토가 작고 부존자원이 거의 전무하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작지만 강하고 잘사는 국가였다.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 번영을 달성한 동남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국가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중 하나이다. 세계적 금융과 물류 중심지이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이다. 독립당시 400달러 수준이던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현재는 6만 달러로 세계에서 8위, 아시아에서는 1위이다. 서민주택이 보급률이 85%에 달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컨테이너 항구를 건설했고 세계유명 금융기관을 적극 유치해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 되었다.

관광 분야에서는 싱가포르 관광청이 주도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양과 서양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을 살린 관광지를 잘 개발했다. 차이나타운과 리틀인디아, 아랍스트리트 등 차로 10~20여분 정도만 이동하면 중국과 인도, 아랍문화를 모두 경험 할 수 있다는 점은 싱가포르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매력이 될 것으로 보였다. 그와 함께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는 현대식 초고층 빌딩과 잘 가꾸진 정원, 깨끗한 거리와 공기 등 싱가포르는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었다.

작은 영토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소유하지도 않고 세계적인 역사문화 유적을 보유한 것도 아닌 싱가포르지만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컨벤션과 레저, 의료 교육 서비스 중점을 둔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 온 결과 매년 1,000만명 넘는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찾는다고 한다.

우리와 싱가포르의 관광정책을 비교해보면 주어진 환경을 탓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불리한 환경에서도 관광대국이 된 싱가포르의 사례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관광객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

## 박관순 의원

싱가포르에서는 같은 건물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디자인의 건물들이 많았다. 배 모양을 한 호텔, 두리안 모양의 극장, 연꽃 모양의 박물관 등 싱가포르의 건축물들은 개성이 넘치고 창의적이었다.

50여년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할 때만 해도 최빈국 이었던 싱가포르가 별다른 자원도 없이 이처럼 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은 URA(Urban Renewal Authority:도시개발청)의 주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협소한 국토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장기적면서도 세부적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수행한다. 그리고 도시개발의 계획단계와 진행과정, 결과는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시티갤러리를 운영해 도시계획과 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을 홍보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국토의 대부분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지를 장기 임대 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경쟁을 통하여 디자인과 콘텐츠가 가장 우수한 건축물이 부지를 낙찰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어진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샌즈호텔과 같은 경우 세금만 연간 약 1조원 가까이 납부한다고 하는데 잘 계획해 만든 건축물 하나가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인 시켜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시선을 사로잡는 웅장한 건물들 사이로 싱가포르강변을 따라서 옛 건물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향신료나 곡물들을 저장했던 창고들이 밀집한 지역이었다고 한다. 오염이 심했던 싱가포르강을 30년에 걸쳐 수질을 개선시키고 예전 건물들을 복원해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으로 사용해 아름다운 야경으로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다고 한다. 좁은 영토에서 용적률이 높은 고층빌딩을 포기하고 전통건물들을 보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명확한 계획이 있었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기에 오늘날 이와같은 변화가 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도 싱가포르의 사례를 거울삼아 장기적 안목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도시계획 정책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 1. 수자원 관리와 하수 재처리로 물 부족 위기 극복

-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좁은 영토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는 싱가포르지만 체계적인 수자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획기적인 하수 재처리 시설 운영 및 물 절약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현재는 정수한 물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 우리의 경우도 선진국 못지않은 뛰어난 하수처리 시설과 저수지 댐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불안정성과 국민들의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는 기존의 수자원 확보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하수 재처리를 통한 물의 재생과 순환 사용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아울러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발굴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 민간사회복지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 싱가포르의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직접 지원을 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가족이 노부모를 돌보고 개인 스스로가 노후를 준비 하도록 지원을 하고,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민간이나 지역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도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과 취업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인 우리의 복지정책을 볼 때 민간 사회복지시설들이 경쟁을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싱가포르의 복지정책을 도입해 우리의 민간 사회복지분야의 프로그램 확대와 지역공동체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3. 체계적인 중장기 도시계획 수립과 공유

-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계획 정책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발전한 도시국가이다. 바다를 매립하여 부족한 국토를 넓혀가고 30년, 때로는 50년 후까지 고려한 개발계획을 세워 국민들과 공유한다.
- 초현대적인 고층빌딩 사이에서도 오래되고 역사적가치가 있는 건물은 최대한 보존하여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Green Roof(옥상정원)와 Green Wall(벽면녹화)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옥상과 건물 외벽, 육교까지 정원을 만든다.
-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신뢰와 엄격한 공공질서를 바탕으로 싱가포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세워 단시간에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우리도 과거와 현재·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